

체험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걸 말하나요?

한번은 교수들과 삿포로에 출장 갈 일이 있었어. 나는 삿포로가 초행이라 관광을 겸해 일행보다 이틀 먼저 갔지. 2월이었는데 걸어다니기 힘들 만큼 눈이 세차게 오더라. 그래도 크지 않은 도시에 지하통로가 잘돼 있어서 오후 반나절 만에 볼 만한 건 다 봤어.

그다음 날은 아침 일찍 서둘러 시내에서 좀 떨어진 삿포로 맥주 공장에 갔는데,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휴일이래. 그래서 삿포로역 관광안내소에 가서 더 볼 곳이 있는지 물었더니, 한참 망설이다가 동물원에 가보겠냐고 해. 이 추운 겨울에, 이 나이에, 나 혼자서 동물원? 내키지 않았지만, 딱히 할 일도 없잖아. 그래서 안내해주는 대로 갔지.

기차로 한 시간 반을 가는데 창밖의 눈구경 하느라 지루하진 않았어. 그런데 역에 내리니 소형버스 타고 40분을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. 슬슬 짜증이 나려는 걸 참고 갔는데, 도착해보니 허접한 동네 동물원인 거라. 이게 뭐야 싶어 후회막급이었지. 아침부터 서둘러 다녔더니 배는 고프는데 음식점도 변변찮아서 그냥 핫도그 하나 사먹고 돌아갈 기차 시간을 봤는데, 다음 기차 타려면 50분은 기다려야 하더라고. 할 수 없이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고 동물원 구경을 시작했어.

입구 초입에는 기린이 있었어. 기린 키가 4~5m쯤 하지? 그러니 동물원에 가도 그저 기린 무릎만 쳐다보고 말잖아? 그런데 어쭙, 여긴 땅을 깊게 파놓고 그 안에 기린이 놀고 있어서, 기린하고 내가 눈을 맞출 수 있더라고. 먹이를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아 놔는데, 기린이 목을 길게 빼고 먹이 먹는 모습을 코앞에서 볼 수 있어. 이 동물원, 생각 좀 있네 싶더라.

그다음은 백곰. 백곰은 물속에서 잘 놀잖아. 그래서 관람객 동선을 수조 옆으로 뚫고 창을 내서 백곰이 헤엄치는 모습을 시